

남손동이진시효횡록



[해제]

<남산동이진사효행록>은 전적(典籍) 형태의 필사본으로 작자는 미상이며, 필사자 또한 미상이다.이 작품은 <별교사>, <군산월애원가>와 함께 실려 있으며, 작품 분량은 9면이다.필사형태는 단아한 궁서체와 줄글형태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조선 후기 숙종 때로 등장한다.남산 아래 이진사는 명문사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살림 탓에 모친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급기야 이진사 부부는 오대강 집에 노비로 팔려 모친의 장례를 치룬다.신분을 속이고 노비살이하던 중에 예전 이진사댁 노비가 모친의 상사 소식을 찾아왔으나 이진사 부부의 현실을 알고 더욱 놀라 대성통곡한다.겨우 사정하여 부인만이라도 몰래 만났으나 오대강댁 다른 노비가 수상히 여겨 살피던 중 오대강마저 자초지종을 알고 나서, 임금께 아뢰어 효자 열녀상을 내리게 된다.이진사 부부는 효행의 실천으로 인해 가난에서 벗어났으며, 벼슬까지 맡게 되어 남은 생애는 행복하게 살게 된다.효행이야말로 백행의 근본이라는 사회적 윤리 개념에 충실한 작품이다.

[원문]

죽난줄을 뉘가알며 셔른소정 뉘가알고
사령으로 눈물노 밤식우고 단독고신
닉한몸이 어디로 가존말고
빅설은 분부하고 낙엽은 만스한되
남북이을 분간업고 손도설고 물도선되
지향이 아득하여 오든길 심각흐니
벼면이 지늬왔다 이룰줄 아라스면
익히느 보올거술 이지경이 뜻받기라
흙양의 도라간들 부모동심 어이보며
원근친척 어이불고 비회을 즈위조
근근이 도라가서 절형을 적히고서
일부종신 허여셔라
총안이 빅발되고 무릅히 귀념도록
세월을 보늬시니 그아니 장할손가
모

남산동이진사효행록
각설이라
잇씨 숙종되왕 즉위시의
남스밋히 스난 이진스난 본이스족이라
칠십노모울 믹시고 조석 걸양하고
부인은또한 나지면 침션하고
밤이면 길숨혀 노친을 봉양하드니
일일은 졸연이 못친의 병이 중하거날
약으로 치료하되 빅약이 무효라

진스와 부인이 하망국하야 하날게 스빅하고
진스와 부인이 방의 드러오니
눈얼 써보시고왈 정명이라 엇지스리오
하시고 인하야 운명하시거날
부인과 진스 신체을 붓들고 덕성통곡하며
천지을 부로적시며 통곡한들 씌어올가
할길업서 숨일이 되도록 염습할 가망이업서
진스부인다려 이로되 닉몸을 팔아
모친의 염습을 하려하니 부인쫓지 엇더하뇨
부인이 통곡왈 낭군의 정성이 저러하니
첩인들 엇지몸을 파지아니 하리잇가
진스왈 닉몸은 남지라 관기치 아니하오나
부인은 스족부여라 엇지이른 말슴을 하오릿가한되
부인이 통곡왈 듯조오니
여조출가 하오면 부모동귀을 이별하고
일신고락이 군조으게 달여쓰니
낭군은 몸을팔아 인조의 도리을하고
첩은 몸을팔아 조부도를 싹고져 아니하리잇가
그러느 남조난 감시적고
여조난 감시만타 후오니
군조의 몸을파지 마옵고
첩의 몸을팔아 급속히
염습을 하시게 하소서하고
붓쳐함게 방의두러가 신체을 붓들고
덕성통곡왈 모친의 염시랄 할길이 업서스와
우리부쳐 몸을팔아 하오니
모친의 실령하감 하옵소서
어진쥬인을 엇게 하압소서하고
오흥뵝으로 가서 문직이다려 일너왈
니가 되감뵝 빅오려 청한되
문직이 드러가 알외니
되감이 부르라 후시거날
진스부쳐 드러가게 하의무러 뵝오니
되감이 뭇조오되 너희논 엇더한
스람이완되 말숨고 하고져 하논다
진스엇조오되 소인은 남손뵝에 스난
이진스뵝 종이압드니
상전뵝이 본되 가빈후온중에

되부인의 상스랄 만나
초상소염을 속슈무척하와 도인부쳐을
급속히 파라드리라 하시거날
소인부쳐 알외오는 말숨이올시다
되감이 드르시고 가로되
너의턱은 성세을 드라니
총혹하고 불상코나 몸을팔아 하시니
진스즉시 도라가즈 필노 써가지고
되감째 드린되 되감이 보시고 의심아니 하시고
전문오십양을 쥬고스니라
진스엿조오되 소인이 되감턱 노복이 도엿스오니
소인도라가 초상장스 지닌후의 도라와
현신하움이 엿더하오릿가
그상전턱의 다른종이 업스오니
소인존닥 가급을 쥬압소셔 하거날
되감이 가로되 그특그특 하도다 하시고
네정성이 지극하니 초상후의 도라오라 하시니
진스또 엿조오되 다만 말미를 쥬옵고
부쳐 다가기는 불가하오니
소닌의 지여미는 턱의두고
소닌만 가오리다하고 돈오십양 안고
집의도라와 초상제절을 극진이 정성으로 다하오니
보논사람이 다충존 아니하리 업더라
잇씨부인이 오흥턱의 이서연소 존약하고
밤이면 모친의 초송제절을 엿지하며
쏘진스 약질이 엿지부지 하논고
밤마다 한증도 일우지 못하더라
나지면 범칙스역 하논일이 충성으로 하고
참견하미 제빅중의 웃듬이라
되감부쳐 스랑하더니 일일은 서답하로 내려오니
존약한 가절이 서답술 엿지 즐하리요
불상하여 제중의 노지이셔
그부인의 성정이 유순하고
괴질이 약함을 보고지닌다가
그을초의 서답을 이기지 못하엿노
괴힘을 논하여 하더라
각셜
잇씨 이진스턱 단노가 잇더니

나가 슈숨연이 지너도록 드러오지 아니하더니
상전척상스 소식을 듯고 망조히 드러와
통곡하고 옛조오딧 소인이 아옵난바
본시빈한 하옵시드니
초상범절을 엇지지너 압시니잇가
진스왈 뉘라셔 돌보리요
그종이 쏘엿조오딧 아기씨님은
어디가 계신지 아니계압신이잇가 하거날
진스 종종하고 딧답지 아니하니
복지하야 다시 옛조오딧
소인이 현신코져 하압나이 다알외거늘
진사 통곡하여 이스오딧
네지성으로 빅압고져 하니
엇지노두지간에 정을 숨기리
만가지로 싱각하딧 속수무척 이오딧
우리니외 몸을 오홍딧의 파라노라
네안상전은 그딧의 잇고 나는 초상후의
즉시가옹홀 머무려 왓노라하니
그종이 딧성통곡하여 가슴을 두다리며 아뢰되
소인이 익시님 뵈오려 오홍딧의 가고져
하나이 다하거날 진스크게 놀니면왈
네지성으로 무르미노 주지간정을
숨기지 못흐와 말하엿슨들
네엇지 망영된 말을하고 닷하시고
무수히 당부하니
그종이 간절이 청하여 옛조오딧
소인이 타인 모르게 빅오리다
만일 누설이 잇습거든 소인을 장하의 쥬기압소셔
진스마지 못하여 편지써주고왈
네상전볼 정성이 지극하기로 이편지 써주나니
부딧 다른사람 못보게 드리고 오라하시니
그종이 즉시 오홍딧의 가문직이 다려문왈
이딧의 스신종은 날과아는
이압더니 보고져 왓노라한딧
문직이답왈 셔답하려 남손하의 갓노라한딧
그종이 즉시남손 하물가이 가본즉한
노직로 더부러셔 답하거날
그종이 나아가 절하고 빅온딧

부인이 종인줄알고 종적을 감추려하고
아지못하노라 하며 가로되
너을 평칭의 아지못하나니
길을가이거 그저 갈거시어
날 무슨일노 절하고 보노요
그종이 통곡하며 엿자오되
부인임은 엿지소인을 아지못한다 하신잇가흐며
셔간을 드리거날
부인이 마지못하야 바다들고 천연하니
그노귀종다려 무러왈 그말숨을 드라니
반다시 곡절이 인노지라
숨기지 말고 바로 이르라하니
그종이 진스되 전후수말을 낫낫치 말하니
노귀부인 다려일너 갈오되니
잠간간관이 이셔 드러갓다가 올거시니
종간 기다리라하고 드러가거늘
조스이 편지을보고 답장코져흐는
지묵이 업셔 손가락을 무러
혈서로 답장히 보되드이
노귀와셔 이로되 되감쌔옵셔 부르시더라 흐거날
부인이 즉시 노귀로 더부러 드러가나
되감이 불너 갓가이 안치고 무르되
니노귀의 말을 드르니 놀납기 그지 업나이다
실상을 숨기지말고 시종근본을 말하라
그렇치 아니하면 좃치못흐리라
은회치말고 고하라 하시니
부인이 잠잠하고 이욕히 잇다가 고하여
엿조되 엿지기리 쏘기리잇가하고 인하여
전후수말을 엿초엿초하고 엿초엿초하다고 바로고한되
되감이 놀ნი이러 절하고 스투하여 가로되
진스부인의 지극한 정성을 뉘가 아리요 하시고
문열닷고 분부하여왈 부인을 안악의 믹시라하고
교조차려 타이고 친히 스스로 빙황하여
이진스 집의가셔 청전 삼백양을 부조흐시고
진스게 효성을 치사하고 도라오니라
명조의 절년에 드러가 진스 부처의 효성을
탐전의 주달하신되 상이놀니 들으시고 갈아스되
이른효조 효부는 만고의 싹할빅 스람업도다 하시고

특별이 호조의하고 하옵서
전문팔푼양을 닮여 부조하시고
신하다려 가로되 짐이 돈부종을 하엿쓰니
경네도각각 힘되로 부조를하라 하신되
뉘아니 부조하리요 일노인하여 돈과박미며
드러오난슈랄 헤아리지 못할너라
상이즉시 권고하여 이진스 부인을 정열부인을 하시고
그거리에 정문을 셔우려 하시고
이진스는 승연후위 벼술을 쥬리라 하시고
인하여 서로스되 막현호온이라 하시고
또중신은 효조가의셔 구한다하니
이진스 부처는 국중의 알게하리라 하시고 인하여
그쓰즈로 글제을뉘여 과거랄 보이시니
그잇흔날 중한효성이
팔도의 진동하고 천축의 유전하니
효조의 아람다운 일흥을 칙양치 못할너라
쑈

[현대역]

죽는 줄을 누가 알며 서러운 사정 누가 알꼬
시름으로 눈물로 밤새우고 단독고신
내 한몸이 어디로 가잔말고
백설은 분분81하고 낙엽은 만산82한데
남북을 분간없고 산도 설고 물도 선데
지형이 아득하여 오던 길 생각하니
벼면이 지내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익히 와볼 것을 이 지경이 뜻밖이라
흙양에 돌아간들 부모동생 어이보며
원근친척 어이볼꼬 비회를 자위조
근근이 돌아가서 절행83을 적히고서
일부중신 하여서라
흉안이 백발되고 무릎이 귀남도룩
세월을 보내시니 그 아니 장할손가

남산동이진사효행록

각설1이라
이때 속종대왕2 즉위3시에
남산밑에 사는 이진사는 본래 사족4이라
칠십 노모를 모시고 조석5 걸양6하고
부인은 또한 낮이면 침선7하고
밤이면 길쌈8하여 노친을 봉양하더니
일일은9 졸연히10 모친의 병이 중하거늘
약으로 치료하되 백약이 무효11라
진사와 부인이 하도 망극12하여 하늘에 사배하고
진사와 부인이 방에 들어오니
눈을 떠보시고 말하기를
정명13이라 어찌 살 수 있으리오
하시고 인하여 운명14하시거늘
부인과 진사 신체를 붙들고 대성통곡15하며
천지를 부로 적시며 통곡한들 깨어올까
할 일 없어 삼일이 되도록 염습16할 가망이 없어
진사 부인에게 이르되 내 몸을 팔아
모친의 염습을 하려하니 부인뜻이 어떠하오
부인이 통곡하여 말하기를
낭군17의 정성18이 저러하니
첩인들 어찌 몸을 팔지 아니하리이까

진사 말하길 내 몸은 남자라 관계치 아니하오나
부인은 사족 부녀라 어찌 이런 말씀을 하오리까한데
부인이 통곡하여 말하길 듣자오니
여자 출가하오면 부모동기19를 이별하고
일신고락20이 군자에게 달렸으니
남군은 몸을 팔아 인자21의 도리를 하고
첩은 몸을 팔아 자부도22를 닦고자 아니하리이까
그러나 남자는 값이 적고
여자는 값이 많다 하오니
군자의 몸을 팔지 마옵고
첩의 몸을 팔아 급속히
염습을 하시게 하소서하고
부처23 함께 방에 들어가 신체를 붙들고 대성통곡왈
모친의 염습을 할 길이 없어서
우리 부처 몸을 팔아야 하오니
모친의 신령하감24 하옵소서
어진 주인을 얻게 하옵소서하고
오흥덕으로 가서 문지기25더러 일러 말하길
내가 대감댁 뵈오러 청한데
문지기이 들어가 아뢰니
대감이 부르라 하시거늘
진사 부처 들어가게 하의26 물어보오니
대감이 묻자오되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관데
말씀 고하고자 하는가
진사 여쭙오되 소인은 남산동에 사는
이진사댁 종이옵더니
상전댁이 본래 가빈27하온 중에
대부인28의 상사29를 만나
초상소렴30을 속수무책31하여 소인 부처를
급속히 팔아드리라 하시거늘
소인 부처 아뢰오는 말씀이올시다
대감이 들으시고 가로되
너의 덕의 성세32를 들으니
참혹하고 불쌍코나 몸을 팔라 하시니
진사 즉시 돌아가자 필로33 써가지고
대감께 드리는데 대감이 보시고 의심 아니하시고
전문34오십냥을 주고사니라
진사 여쭙오되 소인이 대감댁 노복35이 되었사오니

소인 돌아가 초상장사36 지낸 후에 돌아와
현신37하움이 어떠하오리까
그 상전덕에 다른 종이 없사오니
소인에게 가급38을 주옵소서 하거늘
대감이 가로되 기특기특 하도다 하시고
네 정성이 지극하니 초상후에 돌아오라 하시니
진사 또 여쭙오되 다만 말미를 주옵고
부처 다가기는 불가하오니
소인의 지어미는 덕에 두고
소인만 가오리다하고 돈 오십냥 안고
집에 돌아와 초상제절39을 극진히 정성으로 다하오니
보는 사람이 다 칭찬 아니할 이 없더라
이때 부인이 오흥덕에 있어 언소자약40하고
밤이면 모친의 초상제절을 어찌하며
또 진사 약질41이 어찌 부지42하는고
밤마다 한잠도 이루지 못하더라
낮이면 범백사역43 하는 일이 충성으로 하고
참견함이 제비44 중의 으뜸이라
대감부처 사랑하더니 일일은 서답45하러 내려오니
잔약한가 저리 서답을 어찌 잘하리오
불쌍하여 제중의 노재46있어
그 부인의 성정이 유순47하고
기질이 약함을 보고 지내다가
그을 차의 서답을 이기지 못하였노
괴심48을 논하여 하더라
각설
이때 이진사덕 단노49가 있더니
나가서 수삼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아니하더니
상전덕 상사소식을 듣고 조용히 들어와
통곡하고 여쭙오되 소인이 아는 바
본시 빈한하옵시더니
초상범절을 어찌 지냈습니까
진사 말하길 뉘라서 돌보리오
그 종이 또 여쭙오되 아기씨님은
어디 가 계신지 아니 계십니까 하거늘
진사 잠잠하고 대답지 아니하니
복지50하여 다시 여쭙오되
소인이 현신51코저 하옵나니 다 아뢰거늘

진사 통곡하여 있사오되
네 지성으로 뵈옵고자 하니
어찌 노주지간52에 정을 숨기리
만가지로 생각하되 속수무책이오며
우리 내외 몸을 오흥덕에 팔았노라
네 안상전은 그덕에 있고 나는 초상후에
즉시 가우를 머물러 왔노라하니
그 종이 대성통곡하여 가슴을 두드리며 아뢰되
소인이 애씨53님 뵈오려 오흥덕에 가고저
하나니 다하거늘 진사 크게 놀라면서 말하길
네 지성으로 물어보아 노주지간 정을
숨기지 못하여 말하였던들
네 어찌 망령된 말을 하고 탓하시고
무수히 당부하니
그 종이 간절히 청하여 여쭙오되
소인이 타인 모르게 뵈오리다
만일 누설54이 있거든 소인을 장하55에 죽이옵소서
진사 마지못하여 편지써주고 말하길
네 상전 볼 정성이 지극하기로 이 편지 써주나니
부디 다른 사람 못보게 드리고 오라하시니
그 종이 즉시 오흥덕에 가 문지기더러 묻고 말하길
이덕에 사신 종은 날과 아는 이옵더니
보고저 왔노라한데
문지기 답하여 말하길 서답하러 남산아래 갔노라한데
그 종이 즉시 남사아래 물가에 가본즉한
노재로 더불어서 답하거늘
그 종이 나아가 절하고 뵈오니
부인이 종인 줄 알고 종적을 감추려하고
알지 못하노라 하며 가로되
너를 평생의 알지 못하나니
길을 가이소 그저 갈 것이오
날 무슨 일로 절하고 보는데요
그 종이 통곡하며 여쭙오되
부인님은 어찌 소인을 알지 못한다 하십니까 하며
서간을 드리거늘
부인이 마지못하여 받아들고 천연하니56
그 노귀종57더러 물어 말하길 그 말씀을 들으려니
반드시 곡절58이 있는지라

숨기지 말고 바로 이르라하니
그 종이 진사댁 전후수말59을 날날이 말하니
노귀부인더러 일러 가로되
내 잠깐 긴관60이 있어 들어갔다 올 것이니
잠깐 기다리라 하고 들어가거늘
자세히 편지를 보고 답장코저하나
지목61이 없어 손가락을 물어
혈서62로 답장해 보내더니
노귀와서 이르되 대감께옵서 부르시더라 하거늘
부인이 즉시 노귀로 더불어 들어가나
대감이 불러 가까이 앉히고 물으되
내 노귀의 말을 들으니 놀랍기 그지 없나이다
실상63을 숨기지 말고 시중근본을 말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줄지 못하리라
은회64치말고 고하라65 하시니
부인이 잠잠하고 이윽히 있다가 고하여 여쭙오되
어찌 그리 또 그리있가하고 인하여
전후수말을 여차여차하고 여차여차하다고 바로 고하되
대감이 놀라 일어나 절하고 사례66하여 가로되
진사부인의 지극한 정성을 뉘가 알리요 하시고
문을 닫고 분부하여 말하길
부인을 안락에 모시라하고
교자67차려 태우고 친히 스스로 배행68하여
이진사 집에 가서 청전69 삼백냥을 부조70하시고
진사께 효성을 치사71하고 돌아오니라
명조72에 궐내에 들어가 진사 부처의 효성을
탐전73에 주달74하시니 상75이 놀라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런 효자 효부는 만고의 짝할 바 사람없도다 하시고
특별히 호조76에 하교77하옵서
전문팔백냥을 내어 부조하시고
신하더러 가로되 짐이 돈부조를 하였으니
경들도78 각각 힘대로 부조를 하라 하시되
뉘 아니 부조하리요 일로 인하여 돈과 백미79며
드러오는 수를 헤아리지 못할러라
상이 즉시 권고80하여
이진사 부인을 정열부인81을 하시고
그 거리에 정문82을 세우려 하시고
이진사는 삼년 후에 벼슬을 주리라 하시고

인하여 서로사되 막현호은83이라 하시고
또 종신84은 효자가에서 구한다하니
이진사 부처는 국중85의 알게 하리라 하시고 인하여
그 뜻으로 글제86를 내어 과거를 보이시니
그 이튿날 장한 효성이 팔도에 진동하고
천추87에 유전88하니 효자의 아름다운 이름을
측량89치 못할러라
끝

[각주]

- 81) 분분(紛紛) : 어지럽게 흩날림.
- 82) 만산(滿山) : 산에 가득함.
- 83) 절행(節行) : 절개를 지키는 행실.
 - 1) 각설(却說) : 말이나 글에서 이제까지 다루던 내용을 그만두고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림.
 - 2) 숙종대왕(肅宗大王) : 조선의 19대 왕.
 - 3) 즉위(即位) : 왕위에 오름.
 - 4) 사족(士族) : 문벌이 높은 집안.
 - 5) 조석(朝夕) : 아침저녁.
 - 6) 걸양(乞養) : 빌어먹는 아이를 제 자식처럼 거두어 기름.
 - 7) 침선(針線) : 바느질.
 - 8) 길쌈 :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9) 일일은 : 하루는.
 - 10) 졸연(猝然)히 : 갑작스럽게.
 - 11) 무효(無效) : 효용이 없음.
 - 12) 망극(罔極) : 어버이나 임금에게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어 지극히 슬픔.
 - 13) 정명(定命) : 날 때부터 정해진 목숨.
 - 14) 운명(殞命) :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
 - 15) 대성통곡(大聲痛哭) : 큰 소리로 목놓아 울부짖음.
 - 16) 염습(殮襲) :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뒤에 옷을 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
 - 17) 낭군(郎君) : 새로 진사에 급제한 사람.또는 부인이 남편을 사랑스럽게 이르는 말.
 - 18) 정성(精誠) :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 19) 부모동기(父母同氣) : 부모형제.
 - 20) 일신고락(一身苦樂) : 이 한 몸의 괴로움과 즐거움.
 - 21) 인자(仁者) : 마음이 어진 사람.
 - 22) 자부도(子婦道) : 며느리로서 도리.
 - 23) 부처(夫妻) : 부부(夫婦).
 - 24) 신령하감(神靈下鑑) : 신령한 기운으로 굽어 살핌.
 - 25) 문지기 : 드나드는 문을 지키는 사람.
 - 26) 하의(何意) : 무슨 뜻.무슨 일.
 - 27) 가빈(家貧) : 집안이 가난함.
 - 28) 대부인(大夫人) :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자당(慈堂)과 같은 말.
 - 29) 상사(喪事) : 사람이 죽은 일.
 - 30) 초상소렴(初喪小殮) :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의 일과 시신에 새로 지은 옷을 입히고 이불로 씌.
 - 31) 속수무책(束手無策) :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
 - 32) 성세(聲勢) : 명성(名聲)과 위세(威勢).
 - 33) 필(筆)로 : 붓으로.

- 34) 전문(錢文) : 돈.돈의 곁에 새긴 문양이나 글자.
- 35) 노복(奴僕) : 사내종.
- 36) 장사(葬事) :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 37) 현신(現身) :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보임.
- 38) 가급(加給) : 돈이나 물품을 정한 한도 이상으로 더 줌.
- 39) 초상제절(初喪諸節) : 처음 장례를 치르는 여러 가지 절도.
- 40) 언소자약(言笑自若) : 근심이나 놀라운 일을 당하였을 때도 보통 때와 같이 웃고 이야기함.
- 41) 약질(弱質) : 허약한 체질.
- 42) 부지(扶持) : 상당히 어렵게 보존하거나 유지하여 나감.
- 43) 범백사역(凡百使役) : 갖가지 모든 일을 시켜서 함.
- 44) 제비(諸卑) : 여러 노비.
- 45) 서답 : 빨래'의 경상 방언.
- 46) 노재(奴才) : 일정한 수준에 못미치는 모자란 재주.
- 47) 유순(柔順) : 성질이나 태도, 표정 등이 부드럽고 순하다.
- 48) 괴심(愧心) : 부끄러워 하는 마음.
- 49) 단노 : 한 사람의 노비.
- 50) 복지(伏地) : 땅에 엎드림.
- 51) 현신(現身) :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보임.
- 52) 노주지간(奴主之間) : 주인과 노비.
- 53) 애씨 : 아가씨'의 경상 방언.
- 54) 누설(漏泄) : 비밀이 새어나감.
- 55) 장하(杖下) : 곤장으로 매를 맞는 그 자리.
- 56) 천연하니 : 시치미를 뚝 떼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아니한 듯하다.
- 57) 귀종(歸從) : 시종을 들기 위해 붙어 다님.
- 58) 곡절(曲折) : 순조롭지 아니하게 얽힌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나 까닭.
- 59) 전후수말(前後首末) :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자초지종(自初至終)과 같은 말.
- 60) 긴급(緊關) :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긴관사(緊關事)와 같은 말.
- 61) 지묵(紙墨) : 종지와 먹.
- 62) 혈서(血書) : 피로 쓴 글씨.
- 63) 실상(實狀) : 실제 사실.
- 64) 은회(隱晦) : 모습을 감춤.
- 65) 고하라 : 어떤 사실을 말하라.
- 66) 사례(私禮) : 비공식적으로 사사로이 차리는 인사.
- 67) 교자(轎子) : 앞뒤로 두 사람씩 하여 어깨에 메고 천천히 가는 가마.
- 68) 배행(陪行) : 떠나는 사람을 일정한 곳까지 따라 감.
- 69) 청전(淸錢) : 청나라 쇠돈.
- 70) 부조(扶助) :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등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줌.
- 71) 치사(致辭) : 다른 사람을 칭찬함.

- 72) 명조(明朝) : 다음 날 아침.
- 73) 탑전(榻前) : 왕의 자리 앞.
- 74) 주달(奏達) : 임금에게 아뢰던 일.
- 75) 상(上) : 임금.
- 76) 호조(戶曹) : 육조 가운데 전량(田糧), 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 77) 하교(下敎)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침을 베풀.
- 78) 경(卿)들도 : 임금이 이품이상의 신하들을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 79) 백미(白米) : 흰쌀.
- 80) 권고(勸告) :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 81) 정열부인(貞烈夫人) : 정조와 지조를 굳게 지킨 부인에게 내리던 칭호.
- 82) 정문(旌門) :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83) 막현호은(莫見呼隱) : 숨은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중용』에 나오는 말.
- 84) 중신(重臣) : 중요한 관직에 있는 신하.
- 85) 국중(國中) : 국내.
- 86) 글제(題) : 글의 제목.
- 87) 천추(千秋) : 오래고 긴 세월.
- 88) 유전(流傳) : 세상에 널리 퍼짐.
- 89) 측량(測量) : 생각하여 헤아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